

# ‘연속 위닝 시리즈’ KIA, 단독 2위로 3월 마무리

두산에 2승 1패 ‘초반 순항’ 개막 후 5승 1패 승률 0.833 최원준 두 경기 연속 결승타 필승조 합계 1실점 ‘위력투’



이범호 감독 체제로 새출발한 KIA타이거즈가 시즌 초반 순항하고 있다. 롯데디자인츠

에 이어 두산베어스에도 우위를 점하면서 연속 위닝 시리즈로 확실한 기선 제압에 성공하며 우승 후보임을 과시하고 있다.

KIA는 3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3차전에서 9-3 대승을 거뒀다. 앞서 2차전에서 0-8 패배, 1차전에서 4-2 승리로 1승 1패씩을 나눠가졌던 KIA는 이날 승리로 위닝 시리즈를 쟁겼다.

올해 우승 도전을 선언한 이범호 감독 으로서는 기분 좋은 3월의 마무리다. KIA는 지난달 23일 키움과 개막전에서 7-5 역전승을 거둔 뒤 26일과 27일 롯데를 2-1, 8-2로 잡아내며 3283일 만의 개막 3연승을 달성했다.

이어 29일 두산을 상대로 4-2 승리하며 개막 4연승에 성공했지만 30일 0-8로 영봉패를 당하며 자칫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31일 9-3 대승으로 위닝 시리즈를 확정 지으며 시즌 초반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과 진갑용 수석 코치가 3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3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순항을 이어갔다.

이로써 KIA는 3월을 단독 2위로 마무리했다. 두 차례 우천 취소로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여섯 경기를 치른 상황이지만 5승 1패(승률 0.833)로 7연승을 달리고 있는 한화(7승 1패·승률 0.875)의 뒤

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의 시즌 초반 목표에도 도달한 모양새다. 이 감독은 개막을 앞두고 “시즌 초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로 확실히 잡겠다”며 “틀에 박히지 않고 가장 좋

은 컨디션의 선수들을 활용해 확실히 초반 분위기를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3연전에서 KIA는 좋은 타격감을 유지했다. 타선 전반적으로 고른 출루와 안타를 생산하면서 29안타, 13볼넷으로 13득점을 뽑아냈다. 상대 선발이 라울 알

칸타라와 브랜든 와델, 광빈으로 이어지는 1~3선발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 고무적이다.

특히 최원준이 두 차례 승리에서 모두 승부를 가르는 점수를 만들어냈다. 최원준은 31일 3차전 0-0으로 맞선 5회초 2사 1·2루에서 광빈을 상대로 결승 적시타를 때렸다. 최원준은 29일 1차전에서 2-2로 맞선 6회초 2사 만루에서 최지강을 상대로 밀어내기 볼넷을 뽑아냈다.

김선빈과 서건창, 소크라테스 브리토, 이우성도 좋은 타격감을 선보였다. 김선빈과 서건창은 31일 3차전에서 각각 5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 4타수 3안타 1볼넷 2타점 3득점으로 불꽃은 방망이를 자랑했다. 소크라테스 역시 이날 5타수 2안타 1득점, 이우성은 29일 1차전에서 5타수 3안타 3득점으로 활약했다.

필승조도 시즌 초반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최지민이 31일 3차전에서 1이닝 1실점하며 필승조의 무자책점 행진이 여섯 경기만에 마무리됐지만 이번 3연전에서 불펜진이 12.2이닝을 6실점으로 준수하게 막아냈다.

특히 전상현과 정해영이 시즌 초반 강력한 구위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고 있고 장현식과 광도규, 임기영, 황동하 등 필승조 앞에서 버텨줘야 하는 투수들도 든든하게 역할을 해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광주 서구청 펜싱, 실업연맹회장배서 메달 6개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제26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에서 6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성적을 거뒀다.

광주 서구청 펜싱팀은 지난달 28~31일 해남 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최은숙과 강영미가 여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 가졌다.

최은숙은 결승서 맞붙은 팀 동료인 국가대표 강영미를 15-1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은숙과 강영미는 허다정·노선경과 호흡을 맞춘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서구청 여자펜싱팀은 에페 결승서 부산시청을 상대로 2라운드까지 5-6으로 팽

팽한 접전을 벌였지만 이후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결국 39-45로 졌다.

이정함과 김대연은 남자 에페 개인전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국가대표 이정함은 1회전 국군체육부대 허인섭(12-10 승), 16강 부산시청 안성호(15-10 승), 8강 경남체육회 서민준(15-11 승), 준결승 해남군청 권오민(15-13 승)을 물리쳤으나 결승서 부산시청 마세건에게 7-8로 석패하며 2위에 만족했다.

김대연은 준결승서 마세건에게 7-15로 져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정함·김대연·김상진·김재원으로 구성된 서구청 남자펜싱팀은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익산시청과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33-36으로 져 은메달에 머물렀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테니스협회 임원진과 광주·전남 테니스 동호인들이 지난달 30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2024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광주·전남 테니스동호인, 광주오픈 성공 개최 결의

14일 개막... 성공 기원 퍼포먼스

광주·전남 테니스동호인들이 ‘2024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D-15일을 맞아 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지난달 30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2024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광주·전남 테니스동호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테니스협회 임상모 회장 직무대행과 김영배 고문을 비롯한 임원과 테니스 동호인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주오픈 성공 개최 기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광주오픈을 통해 테니스인구

저변 확대와 광주·전남 테니스 발전을 기원했다.

광주오픈은 ATP(세계남자프로테니스연맹)와 KTA(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국제대회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30개국 1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특히 권순우, 홍성찬, 남지성, 정운성, 이재문, 송민규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원 출전해 세계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광주시테니스협회(회장 직무대행 임상모)는 또 이날 광주공유센터(센터장 장우철)와 ‘광주오픈 활성화’를 위한 연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오픈 결승전이 열리는 오는 21일 진월국제테니스장 지하 1층에서 ‘울망줄망 공유장터’를 개최하기로 했다.

‘울망줄망 공유장터’는 페이스·핸드 페인팅, 예코백 체험, 물피리 만들기 등의 공유 체험부스와 시민참여 물물교환하는 공유마켓, 공유놀이터 등으로 운영된다.

임상모 광주테니스협회장 직무대행은 “올해로 7번째를 맞는 광주오픈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 세계 각국의 우수한 선수들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테니스 동호인들과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해 대회 성공 개최로 광주 스포츠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동환 기자

##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대구시청 꺾고 3연패 탈출

27-19 승... 김금정 MVP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최하위’ 대구시청을 꺾고 3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31일 부산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3라운드 네 번째 경기에서 대구시청을 27-19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3연패에서 벗어난 광주도시공사는 6승 1무 11패, 승점 13점으로 5위 부산시청(6승 2무 10패·승점 14)에 승점 1점 뒤진 6위에 위치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초반 상대 강은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5-7로 뒤졌으나 김

금정(센터백)의 활발한 돌파를 앞세운 득점으로 7-7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서로 실책이 나오면서 골이 주춤했고 11-11에서 김수민(라이트윙)의 6미터 버저버터 골로 12-11로 앞서며 전반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초반 대구시청의 연이은 실책을 틈타 18-12로 달아나면서 분위기를 주도했고, 김금정의 주도적인 공격에 힘입어 8점 차 승리를 거두며 3연패 사슬을 끊었다. 광주도시공사 김금정은 7골 9도움 2스틸 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며 경기 MVP에 선정됐다. 주포 김지현(레프트백)도 5골 1도움으로 힘을 보탤다. 골키퍼 박조은은 25개위 슛 중 11개(방어율 44%)를 막아내며 승리를 지켰다. 최동환 기자